

“박찬호답게 뛰며 ‘타이거즈 V12’만 생각하겠다”

지난해 시즌 막판 부상 아쉬워... 새 시즌 첫 목표는 ‘건강’
팬들과 함께 전남대어린이병원에 800만원 기탁 선행도

KIA 타이거즈 박찬호가 오로지 ‘우승’을 위해 2024시즌을 준비한다.

박찬호의 2023시즌은 ‘희노애락’이었다. 골든글러브 후보로 언급될 정도의 뜨거운 플레이로 그라운드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일부 악플러들의 유난한 댓글에 상처도 받았다. 손가락 인대 부상에 이어 손목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팀이 가을잔치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애타는 심정으로 지켜보기도 했지만 ‘야구의 맛’을 제대로 느낀 시즌이기도 했다.

박찬호는 사연 많았던 시즌을 ‘기부’라는 좋은 일로 마무리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팬카페 루게테차노 회원들과 전남대학교 병원을 찾았다.

박찬호는 안영근 병원장, 박창환 진료부원장, 김영민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전남대학교어린이병원에 800만원을 기탁했다.

매 경기 성적에 따라 팬카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적립했고, 이에 맞춰 박찬호와 KIA 타이거즈 후원업체인 키스코(Kysco) 김원범 대표도 정성을 더해 마련한 금액이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전남대어린이병원에 입원 중인 저소득층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쓰이게 된다.

지난겨울에도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 600만원을 전달했던 박찬호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팬들과 함께하는 기부라서 더 의미 있다. 차근차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좋은 일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마무리한 박찬호는 ‘건강’을 우선 목표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KIA 순위 싸움의 전면에 섰던 박찬호는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했다. 부상투혼을 하며 ‘가을잔치’를 노렸던 그는 10월 4일 KT전에서 선발 투수의 공에 왼쪽 손목을 맞아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 시즌을 마감했다.

부상을 지난 시즌 아쉬움 중 하나로 꼽는 박찬호지만 ‘박찬호다운 플레이’는 변함 없을 예정이다.

박찬호는 “내 플레이를 두고 다칠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하셨다. 실제로 이렇게 다쳐본 것은 처음이다. 여러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렇다고 내가 몸을 사리려고 하면 내 성격이 안 나올 것 같다. 내 마음 가짐도 흐트러질 것 같다. 지금까지 플레이해왔지만 이제는 1루 슬라이딩은 안 해야 한다”고 웃었다.

부상보다 아쉬운 것은 팀 성적이다. 박찬호는 2022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통해 기대했던 ‘가을잔치’의 꿈을 이뤘다. 하지만 단 1경기 만에 끝난 바쁜 순간이 못내 아쉬웠던 박찬호다. “더 오래 가을 야구를 하겠다”는 각오로 2023시즌을 맞았지만 KIA는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박찬호는 “2023시즌을 돌아보면 아쉽다. 부상도 그렇지만 팀 성적도 아쉽다. 지금 방망이 잡고 기술



KIA 타이거즈 박찬호(왼쪽에서 4번째)가 최근 전남대학교어린이병원에 800만원을 기탁한 뒤 안영근 병원장(왼쪽에서 세 번째)등 전남대병원 관계자와 팬카페 루게테차노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훈련하고 있다”며 “내가 잘해야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지표보다는 팀 성적, 우승만 생각하고 있다. 개인 성적은 장담 못하겠지만 무조건 매년 발전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매년 목표가 발전이니까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겠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시즌 일부 악플러들의 냉담한 시선도 받았지만 그라운드에서 접하는 팬들의 뜨거운 함성이 박찬호를 움직였다.

박찬호는 “시즌 초에는 팬들이 미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못할 때도 야구장에서 들리는 함성

은 똑같았다. 그 부분에서 멘탈을 잡고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팬들에게 감사하다. 끝나고 나니까 결국 야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광주에서 야구 잘하는 선수로 살아간다는 것, KIA 타이거즈 선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다”며 “처음에는 밥도 편하게 못 먹고 피곤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야구가 생겨서 더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내 애를 예뻐해주고 애를 가든 더 챙겨주시려고 한다. 따뜻하다. 거기에 빠져 살고 있다”고 웃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도 ‘잘하는 선수’로 살고 싶은

박찬호의 마음을 자극하는 무대가 됐다. 일반적으로 유력 수상 후보만 시상식에 참가하지만 ‘2등’ 박찬호도 행사에 참가해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박찬호는 “안 될 것 같았다. 안 갔어도 됐지만 그 자리가 궁금했다. 그런 자리에 엄청난 선수들과 같이 앉아있는 것 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았다. 와이프도 ‘못 받으면 어때’라면서 적극적으로 가라고 했다”며 “좋은 동기 부여가 됐다. 올 시즌 팀 우승하고 당연히 시상식에 참석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신기록 72홀 34개 버디 신바람 임성재 PGA ‘탐5’

임성재가 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일루아의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 투어 더 센트리 최종 4라운드 두 번째 홀에서 퍼트한 후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최종합계 25언더파 267타 공동 5위에 오른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총 34개의 버디를 기록, 역대 PGA 투어 72홀 대회 최다 버디 신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더 센트리 최종 25언더파 267타 공동5위...안병훈 단독 4위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4시즌 개막전에서 ‘한 대회 최다 버디 신기록’과 함께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8일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일루아의 플랜테이션 코스(파73·7596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더 센트리(총상금 20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11개를 쓸어담고 보기는 하나로 막아 10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합계 25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등과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을 차지한 크리스 커크(미국·29언더파 263타)와는 4타 차였다.

이번 대회는 1월에 막을 올려 가을에 마치는 단년제로 돌아온 PGA 투어의 2024시즌 첫 대회다.

지난해엔 전년도 투어 대회 우승자와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했던 선수들만 나설

수 있었는데, 올해는 페덱스컵 랭킹 50위 이내 선수에게도 출전 자격이 주어져 총 59명이 나흘간 경쟁했다.

지난 2022~2023시즌 9차례 톱10에 들었던 임성재는 새로운 시즌 첫 대회부터 상위권 성적을 내 기대감을 키웠다.

특히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1라운드 9개, 2라운드 8개, 3라운드 6개, 그리고 이날 최종 라운드 11개까지 총 34개의 버디를 써내 PGA 투어에서 관련 기록이 집계된 1983년 이후 역대 72홀 대회 최다 버디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엔 2022년 이 대회의 온 람(스페인) 등이 작성한 32개가 가장 많았는데, 임성재가 이번 대회에서 두 개 늘렸다.

이날 1~3번 홀 연속 버디로 기본 좋게 경기를 시작한 임성재는 4번 홀(파4)에서 유일하게 보기를

써냈으나 이후 흔들림 없는 경기를 펼쳤다.

12~15번 홀에선 연속 버디가 나왔는데, 14번 홀(파4)에서 2m 남짓한 퍼트를 넣어 이번 대회 32번째 버디로 PGA 투어 최다 타이 기록을 세운 데 이어 15번 홀(파5) 투온 투퍼트 버디를 추가해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어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한 타를 더 줄여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한국 선수 중엔 안병훈이 최종합계 26언더파 266타를 적어내 4위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지난 시즌 톱10에 4차례 진입했던 안병훈은 한국에서 먹은 기침의 탓에 지난해 10월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모처럼 나선 PGA 투어 대회에서 호성적을 거뒀다.

커크는 지난해 2월 혼다 클래식 이후 10개월여 만에 트로피를 추가하며 PGA 투어 통산 6번째 우승을 수확했다. 우승 상금은 360만 달러(약 47억 3000만원)다. /연합뉴스

‘승격 청부사’ 남기일 감독 中 허난FC 사령탑에

‘승격 청부사’ 남기일(사진) 감독이 중국 허난 FC로 간다.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허난은 지난 7일 구단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기일 감독의 사령탑 부임 소식을 전했다.

허난은 앞서 2010~2011년 김학범 제주 감독이 지휘봉을 들었던 팀으로 지난 시즌에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9승 9무 12패의 성적을 내며 16개 팀 중 10위에 그쳤다.

그만큼 ‘승격 청부사’ 남기일 감독에게는 더 매력적인 팀이 됐다.

광주 금호고 출신의 남기일 감독은 1997년 부천SK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전남, 성남 등에서 선수생활을 했다.

2013년 고향팀 광주FC에서 감독 대행 맡은 그는 2014시즌 광주의 승격을 이뤄냈다. 최종전에서 4위에 오른 광주는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그리고 승강플레이오프까지 내달리면서 기록 같은 ‘승격쇼’를 펼쳤다.

광주의 승격을 지휘한 남기일 감독은 2015년 감독대행을 맡고 정식 감독이 됐고, 2018년에는 K리그2 성남FC 감독을 맡아 그해 다시 승격을 이뤄냈다.

2020년 제주유나이티드의 사령탑으로 변신한 그는 다시 한번 팀의 K리그2 우승을 이끌며, 승격을 이루고 ‘승격 청부사’라는 애칭을 얻었다.

지난 시즌 성적 부진으로 제주 사령탑에서 물러났던 그는 중국 슈퍼리그로 가장 최근 산동 타이거즈 감독, 서정원 청두 통청 감독과 ‘한국인 사령탑’ 대결에 나서게 됐다.

남기일 감독은 “K리그에서 10년 넘게 했고, 처음 감독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중국리그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다른 팀에서 이야기가 나



왔을 때는 확신이 없었는데 이번엔 허난의 진심을 알았다. 팀에서 이야기하는 비전이 맞았고, 같이 가는 방향 그런 부분이 좋아서 선택하게 됐다. 팀이 가는 방향과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잘 맞았다”고 허난행을 설명했다.

이어 “중국 축구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이야기가 잘 됐다. 중국 축구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선진 축구로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며 “허난 팀이 상위 레벨팀이 아니다. 내가 시작할 때 아래에서 팀을 올리는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것이다. 선수 개성을 성장시킬 것이다. 중국 선수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위해, 팀이 변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겠다. 결과를 내야 하지만 그 과정부터 잘 만들어 가려고 한다. 탄탄하게 무너지지 않은 팀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배구연맹 아시아쿼터 64개국으로 확대

연봉 인상·여자부 추첨방식 변경도... 4월 제주서 드래프트

한국배구연맹(KOVO)이 8일 단장 간담회를 통해 2024 아시아쿼터 운영 관련 이사회 결정 사항을 추가 논의했다.

연차별 연봉과 여자부 추첨 방식에 변화가 있다. 먼저 여자부 선수의 연봉은 현행 1, 2년차 세전 10만 달러(약 1억 3100만원)에서, 1년 차 12만 달러(약 1억 5700만원), 2년 차 15만 달러(약 1억 9700만원)로 인상된다.

남자부 선수에 대해서는 1년 차 연봉 10만 달러는 유지하고, 2년 차 연봉을 12만 달러로 올렸다. 여자부 추첨 방식은 기존 7개 팀 동일 확률 추첨에서 차등 확률 추첨으로 바뀐다. KOVO는 하위 3팀의 순서를 1차 추첨하고 2차 추첨에서 나

머지 4팀의 순서를 정한다. 추첨에 사용되는 구슬 수는 7위 30개, 6위 25개, 5위 20개다. 1~4위 팀은 구슬 수 20개로 동일하다.

남자부는 기존 방식대로 7개 팀 동일 확률 추첨으로 진행된다.

KOVO는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제20기 제3차 이사회를 통해 기존 동아시아 4개국과 동남아시아 6개국이었던 아시아쿼터 대상 국가를 아시아배구연맹(AVC)의 64개 전체 회원국으로 확대했다.

아시아쿼터 트리아아웃&드래프트는 오는 4월 말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청룡처럼 비상하겠다 전남드래곤즈가 8일 인천공항을 통해 동계 전지훈련지인 태국 방콕으로 떠났다. 이장관 감독 지휘 아래 2024시즌을 준비하는 전남 선수들은 ‘강인함’을 키워드로 강한 체력과 정신력 무장에 나선다. <전남드래곤즈 제공>